

임진왜란 의 역사적 조명

1592년4월13일 (선조25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전쟁터만 우리나라였지 사실상 조선과 중국대 일본이 싸우는 동북아의 세계대전이었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부터 조선침략이 아니라 중국정복을 내세웠다. 단지 중국을 정복하기위한 장기전에서 조선을 먼저 정복하여 식량과 병력을 지원받고, 조선의 명나라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동북아의 7년전쟁 여파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로 지배정권이 바뀌고, 명은 청나라로 지배정권과 국가가 바뀌었지만, 최대의 피해자인 조선은 나약한 채로 이어가다가 311년 뒤에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다

우리는 임진왜란의 역사적 교훈을 찾아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서, 7년 전쟁을 조명 해보기로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 율곡이이는 병조판서에 임명된 후 국방대책을 위한 6조계를 올리고, 그 유명한 "10만양병설" 을 주장하여 외침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봉당에 휩싸인 당시조정은 류성룡 을 비롯한 모든 중신들도 태평한때에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공연히 민심도 불안 하게하여, 화를 부르는 것이라고 반대만 하였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말았다. 임진왜란 초에 조선육군이 연전연패한 것도 전정·군정·환곡 의 3정의문란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국가기강이 무너져있었고 봉당싸움으로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조선의 군제가 상비군제 가 아닌 번상병제도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던 인력을 교대로 하여 전투원으로 고용하는 민병에 가까운 수준이여서 항상 훈련 부족 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직업군인은 희귀한 존재였고, 그나마 궁궐을 호위하거나 일부국경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지방군 국방전략체제가 조선건국 당시에는 일종의 지역방어체제인 진관체제 이었는데, 이는 각도의 관찰사가 병마절도사의 직책을 겸임하면서 거점마다 진관을 설치하고, 그 반경을 독자적으로 수비 하는 것이었지만, 1555년 (명종10년)을묘왜변을 기점으로 비변사가 상설 기관이 되고, 정승을 비롯한 고위관직과 군사에 밝은 2품 이상의 무관이 비변사의 논의에 참여하여 군사를 비롯하여 외교,인사,재정 등 조정 대부분의 문제의 정무를 총괄하였으며, 세승방략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적의 침입이 있을 때 고을의 수령이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미리 배정된 방어요충지에 집결해 중앙에서 내려온 장수가 지휘하는 체제를 말한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초기에 중앙에서 내려간 순변사 이일의 부대가 상주에서 패했던 일은 제승방략의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경상감사 김수는 동원한 지방민과 포졸로 구성된 부대를 대구에 모아 놓은 후 중앙지휘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지시하고는 자기는 도망치고, 이 지역 지휘관인 경상좌수사 박홍과 경상좌병사 이각은 행방불명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800여명의 훈련을 받지 않은 오합지졸 군대는 고시니 유키나가의 부대 2만여명이 들이닥치자 이일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상주 성을 빼앗겼다.

또한 삼도의 군사령관에 임명된 신립은 도체찰사 류성룡이 모아준 군관 60여명을 이끌고 문경새재 쪽으로 내려가 군사를 모으고 말을 징발해 8천명의 병력을 얻었다. 이일이 상주에서 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신립은 충주목사 **이종장과** 종사관 김여물을 데리고 새재 정찰에 나서 두 부하들이 새재에 복병을 배치하여 싸우자고 건의했으나 그는 함경도 운성부사로 있을 때 정예 기마병으로 여진족을 격퇴한것을 생각하고 지형지물이 많은 새재를 버리고 갈 대늪지대가 많은 충주 **달천강** 앞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단지 훈련되지 않은 군대라 지형지물이 많은 새재에서는 이탈하는 자가 많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그러나 1575년 일본의 나가시노 전투에서 삼척진의 3천여 조총부대가 1만5천의 정예기마 군단을 궤멸시켜 무대포라는 말을 만들어 냈듯이 제대로 마상훈련도받지 못한 군대와 아무런 지형지물도 없는 벌판에서 삼척진 조총부대와와의 싸움은 신립부대가 왜군의 대열에 이르기도 전에 모두 전멸하고 말았다. 임진왜란 전에 대마도 주의 사신이 조총을 조선조정에게 헌납했고, 통신사로간 정사 황윤길이 2자루의 조총을 가져와 시험해 보았건만 조총에 대한 전법연구가 전혀 안되었던 것이 제일 큰 실책이었다. 한강전투에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났으며, 임진강 및 대동강 접전에서는 괜히 도강하여 일군에 공격하므로써 패퇴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그러므로 결국 임진난 전후의 국방전략이나 전술은 거의 무방비하고 조총에 대한 연구나 대비력이 없었다는것이 큰 실책이었다.

행주대첩이나 조선의 병참기지인 호남을 지켜낸 웅치·이치전투에서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최대 적을 맞아 이기거나 비긴 전투였다.

특히 훈련받지 못한 군대도 조총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목책이나 토성등을 쌓고 향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었다.

조선 수군은 한산도대첩에서 적의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뒤 학익진을 형성하여 살보전법 으로 함포와 불화살과 주화 (로켓추진화살)를 집중적으로 일본함선에 타격을 가하였다.

수십 척의 함선이 수백문의 포를 한꺼번에 발사하면 거대한 화망이 형성되어 집중타를 마치고 나면 철환을 맞은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수군의 장점은 조선의 주력이 판옥선인데, 판옥선은 소나무를 사용하여 일본의 함선의 삼나무 배에 비해 내구성이 강했다. 그래서 조선 판옥선은 구경13cm, 사정거리 500m의 장거리포인 천자총통을 비롯한 지·현·승·황자총통을 앞에 2문, 왼쪽에 5문, 오른쪽5문 정도의 포를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판옥선은 U자 형태로 밑이 평평하여 제자리에서 선회하는 능력이 뛰어나 전투 때에 선체를 신속히 돌릴수 있었으며, 일본함선이 2층 구조였는데 반해 3층 구조여서 조선군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무기를 쏠수 있어서 명중률이 높았고, 백병전을 구사하는 일본군의 접근을 막기도 쉬웠다. 특히 조선함대는 튼튼한 본체를 이용하여 적함을 들이받을 때 훨씬 유리하였다. 더구나 이순신장군이 군관 나대용 시켜 만든 거북선은 돌격용으로 제작된 특수전함이었다.

사천전투에서 부터 거북선 3척이 투입되었는데 거북선 입 에서는 유힬연기를 방출하였으며, 사정거리 약 300m나 되는 현자포를 2문 설치하였고, 왼쪽 6문, 오른쪽6문, 뒤 2문의 포가 설치되어 판옥선보다 화력을 더 보강 하였다. 일본함선은 전체가 약해서 대함 아다케에 1-3문정도 장착한 정도였고, 나머지 함선에는 아예 없었다.

한산도대첩은 조선함선의 막강한 화력, 제자리 선회가 가능한 함선의 우수한 구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지휘관 과 정예군사가 학익진으로 일본 수군 주력을 격파하여 세계해전사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한산도해전의 승리로 조선은 남해의 제해권을 쟁취하여 서해로 일본군의 증원군이나 보급물자를 진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본군의 야욕을 꺾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삼도수군 통제영을 한산도로 옮겨 견내량 길목을 지키므로써 일본이 명나라 침략을 못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순신장군은 일본이 우세인 백병전위주의 전략을 지양하고, 함포를 이용해 대규모 기동전을 펼치며, 살보전법을 개발해 여러 함선이 한꺼번에 집중타격을 가해 무기의 한계를 극복한 구국의 영웅 이였으며, 항상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충효로 다져진 우리 민족의 햇불이었다.

조선중기에 이르러 전정·군정·환곡의 문란으로 국가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되어 국방강화를 염두에도 두지 못하는 무기력한 국가로 전락하였는데, 특히 선조에 이르러서는 관직의 수가 제한이 되었고, 이를 원하는 양반이 늘어나 치열한 관직 쟁탈전이 벌어졌다.

1575년 (선조6년) 이조전랑직을 놓고 벌어진 심의겸과 김효원 의 대립이였

다.

이조 전랑직은 높은 관직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자대법을 적용받았고, 중요한 관직에 인사를 추천하는 통청권을 갖고 있는 5품의 관직이었다.

때문에 이조전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매우 민감한 일이었다.

이조전랑을 둘러싼 심의겸(서인) 과 김효원(동인) 의 대립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봉당이 형성되게 되었다.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온 정사 황윤길(서인) 서장관 허성, 군관 황진등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 할것이라 한 반면 동인인 김성일은 일본이 침략치 않을 것이라 진언하게 된다

단지 백성의 동요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는 명분이다.

당시 일본 관백의 답서는 허장성세와 오만불손 하였으며, 명나라를 정벌할 터이니, 조선이 먼저 항복해서 입조하라는 협박성 문구가 있었음에도 선조는 황윤길의 말은 실세한 서인이 인심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겨 배척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감히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말았다.

다만, 조헌이 힘써 일본과 화의를 반대하면서 왜적이 반드시 올것이라고 글을 올리면서 동인을 배척하고 서인 박순, 정철 등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배되고 말았다.

봉당은 그 뒤 서인이 노론, 소론, 동인이 북인, 남인 등으로 갈라져 대립하였으며, 영정조 시대 탕평책을 시행 하였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조선은 그 뒤 세도정치로 퇴폐하다가 1910년 한일합방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당파정치는 오늘날에서도 계속되는 사실로서 우리나라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정치발전은 요원한 것이 이런 봉당정치의 적폐가 답습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무렵 육지에서는 선비와 무관출신 들이 나라의 위급함을 깨닫고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다. 최초의 의병봉기는 낙동강 언저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정인홍은 성주에, 김면은 거창에, 곽재우는 의령에 거점을 확보하고 주변고을을 방어 했으며, 의병대장들은 대개 자신의 재산을 털어 조직을 운영하였지만 부족함이 많았다. 특히 곽재우는 홍의장군으로서 유격전과 지구전을 병행하면서 적이 예측하지 못하는 전투를 벌려 군량 수송 등을 크게 방해 하였다.

조헌은 충청도 옥천에서 거병하여 승병인 영규와 함께 청주성을 회복한 다음 금산성을 공격하다가 700명이 모두 순절하여 칠백의총을 이루었는데, 조헌은 이 전투에서 동생과 아들까지 전사하였다.

또한 경기의 홍계남, 우성전 황해도의 이정암, 함경도의 정문부등도 용전 하였고, 송군으로 묘향산의 휴정을 비롯하여 유정, 처영등 이 분전하였다.

일본과의 휴전 회담을 진행하던 1596년 (선조29년) 이몽학난이 일어났는데, 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병장들이 연루되었다는 모함이 있었고, 그통에 전라도의 유명한 의병장 김덕령과 곽재우도 잡혀 들어가, 김덕령은 끝내 처형당하고, 곽재우도 풀려난 뒤에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다시 의병을 모아 열심히 싸운 뒤, 전쟁이

끝난 뒤에는 고향으로 들어가 은둔하고 말았다.

의병들은 지역지리에 익숙한 점을 살려 작은 병력으로 일본군에 큰 피해를 주었고, 이후 의병이 관군에 편입되면 관군의 전투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선조는 사실 나약한 임금으로서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무장 세력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의병들과 관군의 갈등이 있어 견제와 모함이 항상 뒤따랐다.

선조는 항상 의병을 의롭게만 보지 못했고, 의병 세력이 커져 백성이 칭송하는 것을 시기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선조는 7년 전쟁 후 공신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전장에서 공을 세운 무인들에 내리는 선무공신의 1등급에는 이순신, 권율, 원균 이었고, 2등급에는 김시민, 이억기등 5명 이었다.

이에 반해 7년 전쟁 때 선조의 피란을 수행하던 자들의 호성공신에는 1등급이 이항복, 정곤수 이었고, 2등급은 류성룡, 이원익, 윤두수 등 31명이었으며, 3등급은 무려 55명 이었으며, 그중 내시가 2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선무공신은 18명이었고, 호성공신은 총 86명으로서 무려 4배가 넘었다.

실제 전장에서 공을 세운 의병장은 왜 하나도 없고 선조를 뒤따라 다닌 자들이 공신이라 생각한 것인가?

선조는 임진왜란의 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중국 명나라 군대의 힘이었고, 명나라 군대가 참여한 것은 선조자신이 중국에 호소하여 된 것이므로 강토를 회복한 공이 자신에 있다고 본 듯싶다. 7년 전쟁이 끝난 후 6년 만에 이루어진 공신선정에서 의병출신 들은 철저히 배제한 것은 뒤에 일어난 병자호난 이나 정묘호난에 의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민통합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7년 전쟁은 조선의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왜군은 철수하면서나 전쟁중 수많은 조선인을 살상하여 코를 베어 갔고, 많은 피로인 을 일본으로 데려가 노비화 하였다.

조선의 제일 큰 민족비극 이었던 것이다.

결국 국방력이 없고 나라가 기강에 서지 않으며 경제력이 없으면 이웃국가
가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침략하는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현재 남북이 휴전선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하면서
항상 호전성을 보이는 이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자주국방을 완비하고 경
제력을 튼튼히 하며, 국론통일을 이룩하여 보다 강한 국가를 이룩하여 이웃
나라 들이 칸보지 못하게 우리의 자력·자강·자주 힘을 기르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 아닌가 싶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동지나 적도 없다. 국제관계에서는 항상 자기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 하는 것이 역사적인 진리 인 듯싶다.

정쟁만을 일삼지 말고 국가발전과 경제력 및 국방 강화에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여야만 할 때라고 생각된다.

광양관세사무소

홍정식 관세사